

[2020년 9월 19일 시행 일반경찰 2차 한국사 기출 문제] - 윌비스 원유철

1.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5

- ① 기원전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 ②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 석기를 갈아서 사용하였다.
- ③ 움집을 만들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 ④ 농경, 사냥, 고기잡이를 통해 경제생활을 하였다.

**오답** ①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되었다.

**정답** ①

2. 다음 국가에 대해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p23, 27, 28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었다. [사료 적중] 역사일지 p24

<보기>

- ㉠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 해당 국가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다.
- ㉡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해당 국가 기록이 남아있다.
- ㉢ 『한서』지리지에 해당 국가의 법 일부가 기록되어 남아있다.
- ㉣ 해당 국가에는 마가·우가·저가·구가가 존재했다.
- ㉤ 중국 한나라의 무제에 의해 해당 국가가 멸망하였다.

- ① ㉠㉡㉢                      ② ㉠㉢㉣
- ③ ㉠㉣㉤                      ④ ㉢㉣㉤

**해설** 고조선의 8조법금 내용이다. 고조선에 대해

묻고 있다. ㉦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미송리식토기 등이 고조선의 영향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 한서지리지에 8조법금이 실려 있는데, 현재는 그 중 3개 조항만 남아 있다. ㉨ BC 109년 한무제(유철)의 침공을 받고 BC 108년에 멸망하였다.

**사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50만 전을’

**오답** ㉠ (삼국사기→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삼국시대부터 서술하였다. ㉡ 부여

**정답** ②

3. 다음은 백제에서 제작된 유물이다. <보기>에서 이 유물이 제작되었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 상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p138, 51, 57



<보기>

- ㉠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다.
- ㉡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제작하였다.
- ㉢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 ㉤ 한강 유역을 신라에 빼앗겼다.

- ① ㉠㉡㉢                      ② ㉠㉢㉣
- ③ ㉠㉣㉤                      ④ ㉢㉣㉤

**해설** 모두 부여와 익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사비시대 백제의 유물들이다. 백제 사비시대(성왕.538~의자왕.660)의 사실을 묻고 있다. ㉠ 미륵사 창건과 미륵사지 석탑 건립(무왕) ㉡ 사비천도 직후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 사비천도 후 성왕이 한강을 일시 탈환(551)하였으나, 곧 신라에게 빼앗겼다(553).

**tip** (순서대로) 사택지적비(7세기, 부여), 금동대향로(부여), 부여 쌍북리 출토 목간(cf. 충남 부여에서 백제시대 목간들이 발견됨),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무왕).

**오답** ㉠ 장수왕의 한성 함락(475, 개로왕, 한성시대) ㉡ 벽돌무덤(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만 존재, 웅진시대 무덤 양식)

**정답** ④

4. 다음 제시된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p63, 64, 65, 70

- ㉠ 당나라의 평양성 공격
- ㉡ 당나라의 매소성·기벌포 공격
- ㉢ 당나라의 안시성 공격
- ㉣ 백제의 대야성 공격
- ㉤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 ㉥ 신라의 황산벌 공격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수나라의 고구려 4차례 침공(598, 612, 613, 614년. 영양왕) → ㉣ 백제의 대야성 함락(642, 의자왕) → ㉢ 당 태종의 침략과 안시성 전투(645, 보장왕) → ㉥ 황산벌 전투와 백제 멸망(660, 의자왕) → ㉠ 당나라[나당연합군]의 평양성 공격과 고구려 멸망(668, 보장왕) → ㉡ 매소성 전투(675, 문무왕), 기벌포 전투(676, 문무왕 16년)로 나당전쟁 종결

**tip** ㉢-㉣ 의자왕, 연개소문의 등장(642)과 대야성 전투(642), 당항성 전투(643) 등이 당 태종 고구려 침공의 한 배경이 되었다. ㉤-㉠ 백제 멸망 후 고구려가 멸망당하였다.

**정답** ②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99

- ①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3성 6부이며, 지방 행정 구역은 5경 15부 62주이다.
- ②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토대로 당 문화를 받아들였다.
- ③ 발해 문왕은 당의 문물을 수용하여 체제 정비를 하였으며, 건흥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에 기록한 남북국사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해설** ④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남북국'론을 제창하였다.

**오답** ③ (건흥→대흥). 건흥은 10대 선왕의 연호이다. **정답** ③

6.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88

- ① 신라 말에는 6두품도 능력에 따라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 ② 신라 말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교종과는 다른 유파를 형성하였다.
- ③ 태조 왕건은 불교를 지원하였다.
- ④ 고려 초에는 복진정책을 추진하였다.

**해설** ② 820년대(헌덕왕)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도의가 남종선(頓禪 : 즉시 깨달음)을 전하면서 신라에 선종이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③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당부하였고, 개태사 등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④ 태조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강력한 복진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하고, 복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오답** ① 6두품은 골품제도상 중대, 하대를 막론하고 장관(중앙·지방 장관)이나 장군 등 최고 지위에는 오를 수 없었다.

**정답** ①

7. 최승로가 역대 왕을 평가한 '5조 정적평'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태조는 통일을 이룬 이래로 정사에 부지런하였다.
- ② 혜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 빈객(賓客)과 관료들을 잘 대우해, 처음 즉위하였을 때 여러 사람이 기뻐하였다.
- ③ 광종은 밤마다 사람들을 접견하고 혹은 날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정사를

게을리 하였다.

- ④ 경종은 거짓과 참의 구분이 없어서, 임금이 내리는 상과 벌이 균일하지 않았다.

**예설** ① 태조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후한 덕과 넓은 도량으로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통일 후에는 정사에 부지런했다고 평가한다. 최승로는 태조에게서 이상적인 유교적 군주상을 찾았다.<sup>1)</sup> ③ 광종은 즉위 후 8년 동안에는 아랫사람을 예로써 대접하고 항상 호부자와 역센 자들을 억제하였으며 백성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자못 볼 만한 정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쌍기를 등용한 후로부터 재주 없는 자들을 부당하게 등용하고, 불교를 흑신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등 정사를 게을리 하였고, 말년에는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평가하였다. 최승로는 광종이 중국계 귀화인들을 중용한 것과 전제정치를 행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경종은 정치의 원칙을 알지 못하여 몇몇 권신에게 정사를 맡기니 그 폐해가 종친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이때부터 간사함과 정직함이 구별되지 못하였고 상벌이 고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오답** ② (높이지 않았지만→높이고). 혜종은 태자 시절에는 스승을 존경하고 빈객과 관리들을 잘 대우하였다. 그러나 점차 의심이 많아져 원망이 생기고 인심이 떠나가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답** ②

8. 다음 중 최충헌이 집권할 당시에 발생한 농민·천민의 저항운동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p217, 219, 221

- ㉠ 최광수의 난  
㉡ 이비·패좌의 난  
㉢ 이연년 형제의 난  
㉣ 김사미·효심의 난  
㉤ 광명·계발의 난

1) 최승로가 생각하고 있는 군주상은 위엄 있고 권위적이지 아니라 검소하고 신하들에게 공손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 전주 관노의 난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예설** 최충헌 집권기(명종26년.1196~고종6년.1219)에 발생한 농민·천민 난을 묻고 있다. ㉠ 서경군졸 최광수의 난[고구려 부흥운동 표방](고종4년, 1217) ㉡ 이비·패좌의 난[신라 부흥운동 표방](신종5년, 1202) ㉤ 광명·계발의 난 cf. 진주 공사노비의 난[진주민의 항쟁, cf.정방의의 난](신종3년, 1200)에 참여

**tip** 만적의 난(신종1년, 1198) 이후에 경주와 진주에서 대규모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전자가 광명·계발의 난, 후자가 이비·패좌의 난(신종5년, 1202)이다. ㉢ (경주민의 항쟁). 명종 20년(1190)부터 시작된 경주지역의 농민항쟁은 운문·초전민의 봉기에 이어 신종대에 들어와서는 신라부흥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항쟁은 경상도의 전역을 장악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최충헌이 집권(1196)한 후 경주 지역 소요를 확실하게 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경주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소요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봉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에 농민군을 이끌고 정부군에 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신종 5년(1202) 이비(경주 토호, 여전히 신라부흥 성격)와 패좌(농민 혹은 천민, 국가수탈체제에 저항하는 순수 민란 성격)였다. 이들은 이비, 패좌가 살해되면서 결국 관군에 진압되었고, 신종 7년 경주민의 항쟁은 대충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 (진주민의 항쟁). 최충헌은 집권 이후 자기 외가의 고향인 진주를 자신의 경제적 기반으로 만들고자 지방관을 앞세워 토지점병과 인신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중앙권력층과 연계가 없는 진주 토호와 일반 농민들이었다. 이런 수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계층은 이중의 수탈을 당하고 있던 공사노예였다. 이들은 중앙권력층과 지방 토호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지만, 1차적인 공격 대상은 중앙권력층의 비호를 받는 향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초기의 저항은 진주 공사노예의 반란). 진주지역의 항쟁은 진주의 공사노예가 그들을 억압하는 주리(州吏)에 대한 반감으

로 봉기하였으나, 봉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창정(倉正) 정방의 역시 피해자였음에도 진주 태수가 난에 연루시켜 정방의를 가두자, 오히려 동생 창대가 정방의를 구출하여 함께 반란을 일으켜 태수와 사록을 내쫓고 진주를 장악하였던 것이다(㉔토호세력인 진주 정씨의 반란으로 발전).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토호세력(진주 강씨, 진주 하씨)을 6,400여명이나 살해하였다(㉔토호세력 간 갈등). 정방의는 진주 점령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노예반란을 진압하고 최충헌의 토지겸병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중앙과 타협을 시도하였다. 진주민을 살육하고 중앙의 권세가에게 환심을 사려는 정방의의 태도에 분노와 배반감을 느낀 농민은 노예들과 더불어 정방의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웃 합주의 노을부곡민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합주 노을부곡에는 이미 광명(밤음: 종교지도자 일 걸로 추측함)·계발이 난을 일으킨 상태였는데, 이들은 진주민의 요구에 즉시 승낙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방의에게 참패하고 근거지인 노을부곡까지 공격당해 전멸되었다. 결국은 진주민들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정방의는 6개월 후에야 제압되었다(㉔토호와 지방민의 갈등으로 변질). 결국 진주주민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정씨를 중심으로 한 토호를 몰아내는 데 그쳤을 뿐, 주민과 주리(州吏)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때를 틈타 최충헌은 진주를 완전히 자신의 영유지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진주민이 최충헌의 반대세력인 토호들을 제거시킨 꼴만 되었다. 이후 진주의 대다수 토지들이 최충헌의 농장으로 흡수되어 버렸다(㉔최종 승자는 중앙의 최충헌).

**오답** ㉔ 이연년 형제의 난[백제 부흥운동 표방](고종24년, 1237, 최우 집권기) ㉔ 경상도 운문, 초전의 김사미·효심의 난(명종23년, 1193, 이의민 집권기) ㉔ 전주 군인과 관노의 난(명종12년, 1182, 경대승 집권기)

**정답** ②

9. ㉔이/가 재위할 당시 일어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233

( ㉔ )은/는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 ㉔ )이/가 사람을 시켜 무슨 일인지 물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 나아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 ㉔ ) 앞에 와서는 왕의 측근을 물리치고 말하길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 ㉔ )이/가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허리띠를 하사하였다. [사료 적중] 역사일지 p229

- ①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 ② 흥건적이 침략하였다.
- ③ 친명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정방을 폐지하였다.

**해설** ㉔ 공민왕 재위기(1351~1374)의 일을 묻고 있다. ② 흥건적 침입(공민왕 8년, 10년) ③ 친명정책과 반원정치를 추진하였다. 명이 건국(공민왕17년, 1368)하자 명과 정식으로 국교관계를 맺고, 명과 협력하여 요동에 남은 원 세력을 공략하였다. ④ 정방 폐지(공민왕 5년)

**사료** ‘이연종’,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십시오.’

**오답** ① (우왕). 명의 철령위 설치 통고 문제로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cf. 공민왕 때도 최영과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때는 최영이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정답** ①

10.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㉔ 왕과 ㉔왕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276

○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은 의정부 권한의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

-「㉠실록」-**[사료 적중] 역사일지 p277**

-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 · 갓끈 · 빗 · 바늘 · 분(粉) 같은 물품을 가지고,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여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는다.

-「㉠실록」-**[사료 적중] 역사일지 p335**

- ① 『농사직설』과 같은 농업 서적을 간행하였다.  
② 저화, 조선통보 등을 발행하였다.  
③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④ 별자리를 그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다.

**예설** ㉠ 태종 ㉡ 세종. ① 세종 ② 저화는 태종이, 조선통보는 세종이 발행하였다. ③ 세종

**사료**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 '의정부...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태종 대 6조직계제 사료) /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 · 갓끈 · 빗 · 바늘 · 분(粉) 같은 물품을'(조선 초기 행상[보부상]에 대한 설명으로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오답** ④ 태조

**정답** ④

11. 다음 ㉠~㉢의 인물들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369**

“아! ( ㉠ )은/는 ( ㉡ )의 아들이다. ( ㉢ )께서 종통(宗統)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이어받도록 명하신 것이다. 아! 전일에 ( ㉢ )께 올린 글에서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미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괴귀(怪鬼)와 같은 나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숭(追崇)하는 의논을 한다면 ( ㉢ )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해당 형률로 논죄하고 ( ㉢ )의 영령(英靈)께도 고하겠다.”

- ① ㉠은/는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 ㉡은/는 『동국문헌비고』와 『속대전』 등을 편찬하였다.  
③ ㉢은/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 ④ ㉠와/과 ㉡은/는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예설** ㉠ 정조 ㉡ 사도세자 ㉢ 영조. ① 신해통공(정조, 1791)

**tip** 사도세자 죽음으로 정조가 죄인의 아들이 되자, 영조는 세손인 정조를 사도세자의 이복 형인 효장세자(영조의 맏아들로 10살 때 요절)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 왕위를 잇게 해주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일은 세손과 신하들에게 함구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정조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 첫 일성으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사도세자를 계승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cf. 정조 즉위 후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장조로 추존되었다.

**사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이어받도록 명’

**오답** ② 영조 ③ 정조 ④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사도세자는 국왕이 되지 못하고 세자 신분에서 사망하였다.

**정답** ①

12.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435**

옛날에 백성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농공상입니다. 사의 업은 오래되었습니다. 농공상의 일은 처음에 역시 성인의 견문과 생각에서 나왔고, 대대로 익힌 것을 전승하여 각기 자신의 학문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의 학문은 실제로 농공상의 이치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세 가지 업은 반드시 사를 기다린 뒤에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농업에 힘쓰는 것이나, 상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는 것이나, 상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게 하고 유통시키고 혜택을 주게 하는 것은 사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 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다.  
②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 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 하자고 제안했다.

- ③ 양반의 상업 종사를 강조하였고,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설** 박지원의 《과농소초》 내용이다. 박지원은 이 글에서 선비들이 실학을 하지 않아 농공상이 쇠퇴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④ 박지원 등 중상적 실학자들은 농업의 생산성과 상품작물 재배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18세기 발생한 전황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익은 폐전론을, 박지원은 용전론(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료** ‘옛날에 백성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의 학문은 실제로 농공상의 이치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세 가지 업은 반드시 사를 기다린 뒤에 완성됩니다.’

**오답** ① 홍대용 cf. 이익 역시 지구 구체설을 주장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② 여전론(정약용) ③ 박제가

**정답** ④

13.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p400

- ①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와 출세와 장수, 행운과 복을 비는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 ②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해졌고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많아졌다.
- ③ 보부상은 포구나 지방의 큰 장사에서 금융, 운송업, 숙박 등을 담당하였던 상인이다.
- ④ 『홍길동전』 『춘향전』 등과 같이 신분제를 비판하거나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예설** 김득신은 김홍도의 화풍을 이은 조선후기 풍속화가이다. 조선후기의 특징을 묻고 있다. ①·②·④ 모두 조선후기의 특징이다.

**오답** ③ (보부상→객주·여각). 보부상은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말하는 소규모 상인으로, 지방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장돌뱅이’ 행상들을 말한다. 객주·여각이 포

구, 대장사에서 활동하면서 금융(어음 발행), 운송(거간, 도매, 위탁판매 등도 담당), 숙박업[여관·창고업] 등을 담당하였다.

**정답** ③

14. 다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내용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중사례] 역사일지 2권 pp7, 8, 9, 14

- ㉠ 경북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과 청전(淸錢)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였다.
- ㉡ 한성군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양헌수 부대는 정족산성(삼랑성)에서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 ㉢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의 제공과 난파된 선박의 선원 구조도 거절하였다.
- ㉣ 동학의 최제우가 흑세무민으로 처형당한 이후 이필제의 난이 일어났다.
- ㉤ 서계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등장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예설** 흥선대원군 집권기(고종 원년.1863~고종10년.1873). ㉠ 산포수 출신 양헌수가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고, 한성군은 강화도 건너편 내륙인 문수산성에서 싸웠다. ㉡ 동학 창도(1860) 후 4년 만에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당했다(1864). 한편 임술민란 이후에도 전라도에서는 광양의 난(1869), 경상도에서는 이필제의 난(영해의 난, 1869~1871) 등 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이필제의 난에는 교조신원을 핑계로 최시형(2대 교주)도 참여하였다. ㉢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 이후 국서를 보내 통교를 요구하였으나, 대원군이 서계문제로 거부하였다. 이 서계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사이고 다카모리를 주축으로 정한론이 등장하였으나, 일본정부내 ‘정한론파’와 ‘외유파’의 대립에서 외유파가 승리함으로써 정한론은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오답** ㉠ (청전은 발행한 화폐가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화폐이다). 흥선대원군은 경북궁 중건사

업과 지속되는 군비확장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고, 당백전 발행이 중단된 이후에는 청전(淸錢)을 수입하여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폭등하였다. ㉠ 조선은 '유원지의'라 해서 먼데서 온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가 있었다. 이 때문에 통상수교거부정책과는 별도로, 난파돼 온 배가 있으면 선원들을 구해 먹여주고 입혀주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서 청으로 돌려 보내주었다.

**정답** ②

15.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2권 p43

대개 적은 천한 노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양반들을 가장 미워하였다. 길에서 갓을 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달려들어 '너도 양반이냐'며 갓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 ……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천민에서 면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이들 중 몇몇은 주인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 무렵 노비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소문을 듣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화를 피하기도 하였다.

-황현, 『오하기문』- [사료 적중] 역사일지 2권 p41

- ① 동학 농민군은 대도소(大都所)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 독자적인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② 제2차 농민 봉기는 손병희가 이끄는 남접과 전봉준이 이끄는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③ 동학 농민군은 화승총으로 무장한 관군과 싸우기 위해 장태를 이용하였다.  
 ④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 등을 조직해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다.

**해설** 동학농민군 활동(1894) 당시의 상황을 저술한 글이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묻고 있다. ①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전주에 집강소 총본부인 대도소를 설치하고 전라도 53개 군에는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폐정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③ 장태는 닭장을 이용해 만든 농민군의 신무기이다. 농민군은 장태를 이용해 장성 황룡

촌 전투에서 관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④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은 대한제국 시기 충청·경기·경상도의 활빈당, 전라도의 영학당, 제주도의 남학당 등으로 이어졌다.

**사료** '대개 적은 천한 노비들로 구성되어', '갓을 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달려들어 '너도 양반이냐'며',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천민에서 면해 줄 것을 강요'

**오답** ② (남접, 북접 반대로 설명). 일본군의 경복궁 침공 이후[일본군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손병희의 충청도 북접과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남접이 연합하여 제2차 봉기를 감행하였다.

**정답** ②

16. 다음 ㉠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2권 p224

| 직명   | 성명 | 연령 | 출생지 | 임명연월일     | 사직연월일 |
|------|----|----|-----|-----------|-------|
| 경무국장 | ㉠  | 44 | 신천  | 1919.8.12 | .     |

- ① 1932년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장으로 임명되었다.  
 ②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③ 상해에서 한민애국단을 결성하였다.  
 ④ 단독정부 수립에는 반대하였으나 5·10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해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에 대한 설명이다. ① 임시정부 내무부 산하에 상해 거류민 기구인 대한교민단이 있었는데, 그 교민단의 경찰기구로 의경대(1923)를 두었다. 의경대는 1923년 김구가 내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상해 교민단의 자치와 치안을 보전하고 일본측 분자의 불의한 행동을 경계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4년에는 내무총장인 김구가 고문이 되었고, 1932년 1월에는 김구가 의경대장이 되었다. ② 김구가 임정에 합류하면서 경무국이 만들어지고, 김구가 초대 경무국장이 되었다(1919.8.12). ③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김구가 임정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그 산하단체로 상해에서 한민애국단(1931)을 조직하였

다.

**tip1** '경무국장(1919.8 임명)', '황해도 신천[해주] 출생' cf. 임시정부 경무국은 임시정부 수립 후 각 지역의 인사들이 모여들고 임정의 내각이 하나씩 구성될 때쯤 김구가 임정의 내무총장 안창호를 찾아가 자신이 '임정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청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이후 약 5년간 김구가 경무국장 일을 맡았다고 한다. 경무국은 임시정부 요인 경호, 일제 정탐 방지, 경찰 등 업무를 맡았다.

**tip2** 임시정부 경찰은 내무부 산하 경무국을 중심으로 비밀 지방조직인 연통제 산하 경무사와 경무과, 교민단 산하 의경대 등으로 조직이 꾸려졌다.

**오답** ④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는 5.10 총선거 이전에 남북협상(1948.4)을 전개하며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5.10 총선거가 강행되자, 남북협상파들인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은 이 선거에 불참하였다.

**정답** ④

17. 해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2권 pp190, 192

- ①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
- ② 중국 국민당 정부는 뤼양(낙양) 군관 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③ 1942년 설립된 조선의용군의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④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항일무장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해설** ② 애국단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중국군사학교(중양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임정인사들을 입교시켜 군사력 양성의 길을 열어주었다. 낙양분교가 폐쇄된 이후에는 남경에 있는 중양육군군관학교 본교로 이동하여 간부

양성을 지속하였다. ④ 만주사변 이후, 북만주의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 등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오답** ① (난징→상해). 중국 내 통일운동단체로 상해에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1932)이 출범하고, 이 결과물로 난징에서 민족혁명당(1935)이 결성되었다. ③ (1942→1938, 조선의용군→조선의용대). 1938년에 설립된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해 1942년 조선의용군을 결성하고, 남은 병력은 1942년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정답** ①, ③

18.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2권 pp198, 147, 148, 150

- ① 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개량 한옥이 보급되었고 복도와 응접실, 침실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 문화주택이 등장하였다.
- ② 농민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인 농민 운동 단체인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어 보다 조직적으로 농민 운동을 이끌었다.
- ③ 방정환과 조철호를 중심으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처음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 ④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토월회가 결성되어 남녀평등, 봉건적 인습 비판 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순회공연을 하였다.

**해설** ① 1920년대에 지어진 개량한옥은 대청마루에 유리문을 달고 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중류층의 혼합형 가옥이었고, 1930년대에 나타난 문화주택은 2층 양옥으로 복도와 응접실, 침실, 아이들 방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생겨난 상류층의 주택이었다. ② 1920년대 들어 전국적인 노동, 농민 단체가 등장하였는데, 1924년의 조선노동총동맹, 1927년의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이 대표적이다. ④ 토월회(1923)는 도쿄 유학생들에 의해 창립된 극단으로, 귀국 후 계몽을 목표로 남녀평등, 봉건적 유교사상 비판, 일제에 대한 저항을 주제로 국내 각지를 돌며 순

회공연을 하였다. 이것이 본격적인 근대적 신극 운동의 시작이었다.

**오답** ③ (5월 5일→5월 1일). 방정환이 1923년 천도교 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해 근대적 의미의 어린이 운동이 시작되었다. 소년운동협회 주최로 그 해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회가 열리고 <어린이 선언문>(1923.5.1.)이 발표되면서 어린이날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어린이날이 노동절과 겹치자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로 바꿨다가, 해방 이후 1946년부터 5월 5일로 정하였다(1973년 정식 법정기념일이 됨).

**정답** ③

19. 다음 제시된 해방 이후 사회·정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2권 pp217, 220, 224, 230, 232

-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 제헌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 ㉢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 ㉣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창설을 공포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정읍 발언(1946.6) → ㉡ 남조선 과도입법의원(1946.12) → ㉢ 5.10 총선거(1948.5) → ㉣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948.9) → ㉤ 「농지개혁법」 공포(1949년 제정, 1950.3 개정·시행)

**tip** ㉢·㉤ 1946년 2월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 토지개혁(3월) 등 '민주개혁' 즉 때 이른 친일청산을 실시하자, 남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때마침 제1차 미소공위(1946.3월~5월, 임시정부수립 시도)마저 실패로 끝나자, 남한의 좌우파는 정부수립과 친일청산을 두고 분열하였다. 이승만은 먼저 단독정부 주장을 하

였고('정읍발언', 6월),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도파는 미군정의 입장을 받아들여 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중도파가 제시한 '좌우합작 7원칙'(10월)이 좌우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미군정은 그해 12월 독자적으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설립하였다. ㉠·㉡·㉢ 5.10 총선거로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7.17)되었다. 이 헌법을 근거로 정부 수립(8.15) 후 초대 국회에서 반민법(1948.9)과 농지개혁법(1949)을 제정하였다.

**정답** ③

20.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중사례] 역사일지 2권 p236

- ①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반공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④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해설** ② 이승만 정권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죄 및 대통령 등 헌법상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을 신설한 국가보안법을 자유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24 보안법 파동). ③ 사사오입개헌(2차 개헌, 1954) ④ 발췌개헌(1차 개헌, 1952)

**오답** ① (국가보안법 개정은 1960년 대선에 대비해 자유당이 추진하였다). 1958년 자유당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강행하려 들자, 야당인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개악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11.27). 이에 자유당이 맞불을 놓아 12월 2일 '반공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 cf. 자유당이 야당 의원들을 감금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24 보안법 파동'(1958.12.24)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정답** ①